

“우주인 놀러오는 순천”...순천만국가정원, 관람객 100만 돌파

아날로그 정원에 AI·문화콘텐츠 요소 ‘접목’ 야간 수상 퍼레이드·나이트 가든 역대급 인기

순천만국가정원이 개장 5주 만에 누적 관람객 100만명을 넘어서며 성공 신화를 알렸다.

8일 순천시에 따르면 개장 첫 주 만에 21만명의 관람객을 맞이한 데 이어 지난 6일까지 관람객 100만510명을 기록해 ‘정원 신화’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3·6일까지 황금연휴 기간 14만 명이 순천만국가정원을 찾았으며, 어린이날 하루 전인 4일에는 7만6천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1일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순천시는 올해부터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아날로그 정원에 인공지능(AI), 애니메이션 요소를 접목해 주요 시설 및 콘텐츠

를 대폭 강화했다.

그 결과 개장 전부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콘텐츠에 대한 호평이 쏟아지며 연일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정원 곳곳에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찾아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특히 씨앗을 찾아 떠나는 스텝 넘치는 4D 어트랙션 ‘시크릿 어드벤처’, 유미의 세포들과 꼬마 우주인이 함께하는 ‘유미의 세포들 더 무비’, AI 두다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두다톡’은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이곳을 찾은 어린이들은 거대한 ‘정원 놀이동산’을 만끽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



순천만국가정원이 개장 5주 만에 누적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했다. 사진은 순천만국가정원을 관람하는 방문객들(왼쪽)과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퍼레이드 모습. (순천시 제공)



(순천시 제공)

이 밖에도 24개 읍·면·동 캐릭터와 순천만습지 생태계를 모티브로 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퍼레이드는 운영 첫 날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야간의 불거리와 즐길거리가 채워지면서 순천에 머무는 관광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야간 수상 퍼레이드와 정원 관람을 2시간 코스로 구성한 ‘나이트 가든 투어’는 시범 운영한 첫 달에 전량 매진되는 역대급 인기를 과시했다.

정원을 찾은 관람객들은 “꽃과 나무를 보며 힐링하고, 체험 프로그램과 공

연도 즐길 수 있어 하루 종일 신나고 재밌었다”며 “우주선 모양의 스페이스 버릿지, 눈이 시원해지는 스페이스 허브 등 즐길거리가 정말 많다”고 소감을 밝혔다.

노관규 시장은 “순천만국가정원이

‘보는 정원’에서 ‘즐기는 정원’으로 완전히 달라졌다”며 “다가오는 여름에는 물놀이터·개울길 광장 등 시원한 여름 정원만의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니 마음껏 즐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순천=정기 기자

정인화 광양시장, 국비 확보 ‘동분서주’

해수부·기재부 등 방문 울산산단 연결도로 개설 건의

정인화 광양시장이 지역 현안 사업들의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8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정인화 시장은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는 강령고속도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을 만나 광양항 현안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사진)

정 시장은 최영호 기획재정부 별사 예산과장 등 기재부 관계자들과 간단 회의를 갖고 최근 광양시 최대 현안들을 설명했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광양항 울산산단 연결도로 개설 ▲광양항 서측



철송장 이전 등 총사업비 4천800억원 규모다.

정인화 시장은 “5월은 내년도 예산을 각 부처에서 기재부로 넘기는 시기로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부처를 설득해야 한다”며 “특히 지난 3월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양항 배

후산업 지원을 약속한 만큼 국가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안 사업을 꼭 반영해 달라”고 적극 요구했다.

한편, 광양시는 5월을 ‘국비 확보를 위한 부처 집중 방문 시기’로 정하고 간부 공무원들의 부처 방문을 독려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양=양홍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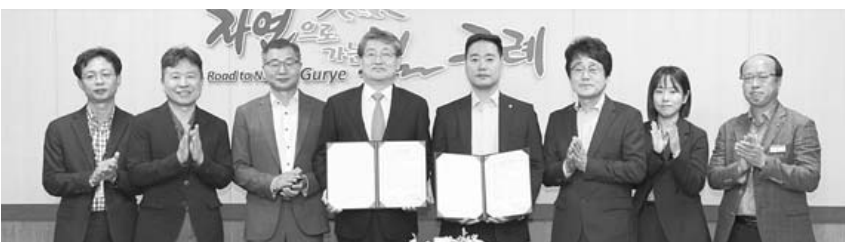
구례군-(주)웨이브파크 레저스포츠 군민 할인 제휴 협약 체결

구례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주)웨이브파크와 상호협력력을 위한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협약식에는 김순호 군수, 김윤준 웨이브파크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웨이브파크는 세계적 내내 서핑과 다양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호텔·카라라 등 휴양리조트

트가 결합된 복합문화시설이다. 크기는 5만2천800㎡로 인공서핑장으로서



세계 최대 규모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례군민은 웨이브파크 자유 서핑과 아카데미(서핑 레슨)를 각 2만원, 미오코스타(물놀이장)는 4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구례=임종길 기자

서편제보성소리축제, 김다정씨 대상 영예

명고부 대상에 이강토씨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가 김다정씨(41·여)씨가 명창부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진)

8일 보성군에 따르면 전통 판소리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계승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열린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경연대회는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기간 중 보성군문화예술회관 및 보성판소리성지에서 진행됐으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판소리 고수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냈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명창부 대상인 대통령상은 김다정 씨에게 돌아갔으며, 트로피와 함께 1천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캐리커처, 먹거리 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풍성함을 더했다.

특히 축제장을 방문하지 못하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명창부 분선 및 시상식을 보성군 관내 마을회관에 실시 간으로 영상 송출하는 서비스가 제공돼 많은 이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고(故) 성장순 명창을 기리기 위해 신설된 ‘성장순 명창상’은 성장순 명창 유족회가 200만원을 후원하며 판소리 명창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박민정(41·여) 씨에게 수여됐다. /보성=임병연 기자

‘담양군민의 날’ 행사 성료

담양군민 상·명예군민증 등 수여

담양군은 8일 “최근 담양문화회관에서 군민의 최대 축제인 ‘제45회 담양군민의 날’ 기념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담양군은 대나무축제와 함께 군민의 날 기념 행사를 진행해왔으나,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군민의 날 본연의 의미를 되살리고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단독으로 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군민 참여 식전 공연, 군민 작품 전시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와 함께 중국 의빈시의 7개 자매교류 도시 단체장의 축하 영상, 담양군민의 날 시상과 명예군민증 수여 등으로 채워졌다.

특히 행사 마지막에는 참석한 군민들과 기관사회단체장들이 함께 고희사랑기부제 참여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지난해 1위에 이어 올해도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한 홍보를 이어갔다.

담양군민의 날 상 수상에는 ▲지역개발 부문 김범진 담양농업협동조합장 ▲체육진흥 부문 정영창 담양군체육회장 ▲산업경제 부문 이문태 담양군농업회의소회장 ▲사회복지부문 장려상 최순남 농가주부모임 담양군연합회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진)

군민의 날 특별상에는 ▲관방제립을 촉진한 고(故) 성이성(成以性) 전 담양부사 ▲정일기 광주원예농협조합장 ▲김준규 ㈜태영티에스 대표 ▲김정우 재경담양군향우회 사무총장 ▲이인순 서울 성북구의회 의원 ▲이종혁 담양



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수상을 했다.

담양군 명예군민증은 정치혁 ㈜보해 양조기획생산본부 생산팀장, 엄수근 ㈜정인건축사무소 이사 등에 수여됐다. 명예군민증은 지역 개발과 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해외교포와 타 지역 출신 인사로 대외적으로 담양군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로 선정됐다.

이병노 군수는 “변화와 혁신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여망을 군민과 함께 이루기 위해 900여명의 공직자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군민들도 주인 의식을 갖고 담양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고민하며 행복한 자립형 경제도시를 실현하는 데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LG화학 여수공장, 석유화학 산업 ‘디지털 전환’ 박차

생산·유지보수 등 산업 전반에 AI기반 DX기술 도입

LG화학 여수공장이 석유화학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 LG화학 여수공장에 따르면 여수공장은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이용해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디지털 변혁(DX)을 산업 현장에 적극 활용해 작업 효율성 증대 및 산업 재해 감소에 앞장 선다.

LG화학 여수공장은 최근 ‘플레어 스택(Flare Stack)’ 공정 이상 감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작업 효율을 증대했다.

배출가스 연소탑이라고도 불리는 ‘플레어 스택’은 공정 중 발생하는 폐가

스와 액체 성분이 매연이 되지 않도록 완전히 연소시킨 뒤 안전하게 배출하는 처리 시설이다.

딥러닝(Deep Learning) 기반의 영상 분석 기술을 적용한 공정 이상 감지 시스템은 해당 플레어 스택의 불꽃, 그늘을 정도로 자체적으로 인식해 이상 상황을 감지하고, 연소에 필요한 산소 투입량을 조정해 잔여 성분이 완전 연소되도록 한다.

기존 공장 운전원이 수동으로 처리하던 사항을 AI가 자체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생산 효율과 안전성을 높인 것이다.

LG화학 여수공장은 현재 운용 중인 1개 공장과 더불어 추가 5개 공장에 올해 상반기 내로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고속권 작업자의 기술에 의존해 진행하던 고위험 작업들도 DX가 대체한다.

LG화학 여수공장 관계자는 “제품 생산부터 설비 유지보수, 품질 검사에 이르기까지 생산 라인 전반에 DX를 적용해 스마트 플랜트(Smart Plant)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한계로 발생할 수 있는 휴먼 에러(Human Error) 방지를 통해 작업 안전성·생산 효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장성 안평쌀, 전남 최초 美 수출길

맛·찰기 일품 ‘특등급’...농촌진흥청 개발 신품종

장성군이 재배한 안평쌀이 전남 최초로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8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7일 김한중 군수, 농촌진흥청, 전남도농업기술원,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농협중앙회 관계자, 농업인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평쌀의 첫 해외 수출을 기념하는 선전식을 개최했다.

이날 장성군은 미국 텍사스주에 4kg

들이 300포 부량을 시범 수출했다. 이번 수출로 토양 검정, 염색도 측정, 단백질 검사 등 엄격한 과학적 관리를 통해 재배된 특등급 안평쌀을 미국 시장에 선보이게 됐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신품종 벼 ‘안평’은 일반적인 쌀보다 맛이 달고 찰기가 돌아 선호도가 높다. 2020년 최고 품질 쌀로 선정됐을 정도로 밥맛이 보장

된 품종이다. 장성군은 전남 최초로 재배 시범 사업에 뛰어들어 185ha 규모 단지를 조성했다. 글로벌장성농조합법인인 재배를 맡았으며, 장성군 농업기술센터가 농가 재배기술 교육과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했다.

김한중 군수는 “시식회와 소비자 반응을 통해 맛이 검증된 안평쌀이 미국 시장에서도 호평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품질 쌀 판매 시장에 첫걸음을 내딛 만큼 국내외 판로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장성=김태기 기자